

## PR생태학 의미 제안과 실천 가능성 모색

박기철 경성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PR은 홍보를 하는 일이 아니라 공중과 관계를 이루려는 일이다. 그러한 관계의 철학을 인간사회로부터 생태계로까지 범위를 넓힌 것이 PR생태학이다. 이는 PR이 갈 수 있는 가장 멀고 넓은 궁극적 도착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단속사회, 피로사회, 조작사회, 풍요사회, 위험사회, 전투사회, 해체사회, 낭비사회, 폐기사회, 분열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눈앞에 것만 총동적으로 보고 질주하는 근시사회다. 이러한 사회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각 이념 사상이 생태주의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 지금 21세기에 생태주의를 실천했던 9인의 생각은 PR생태학의 기본사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좌우로 갈린 경제주의와 인간 중심의 인간주의 세상에서 벗어나 살아야 할 세상이 이미 다가오고 있다. PR생태학은 생태주의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복잡계 세상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

**KEY WORDS** PR • 공중관계 • 생태주의 • 관계

---

\* kaciy@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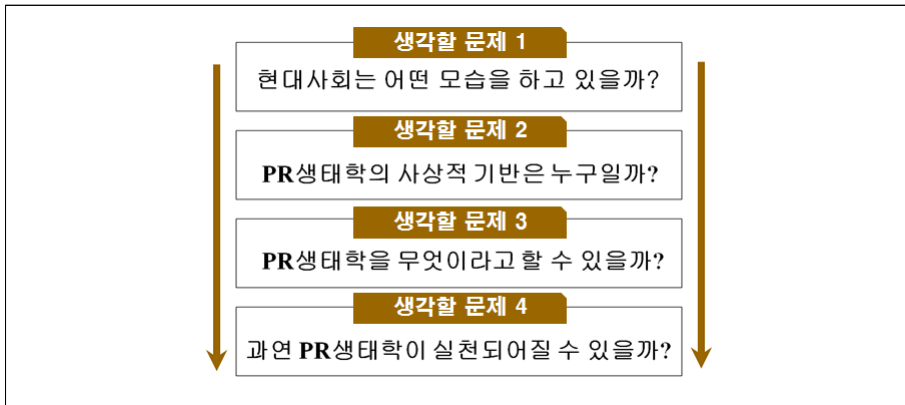
## 1. 왜 네 가지 생각할 문제를 끄집어냈을까?

본 연구자는 PR생태학 이전에 PR철학(박기철, 2011)을 바탕으로 PR정치학에 관한 네 편의 연작 논문들(박기철, 2012a, 2012b, 2013, 2014)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PR정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널리 알리는 정치 홍보가 아니다. 분열하며 대립했던 공중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서로 협력하고 조화롭게 하는 관계 활동이다. 즉 공중과의 관계를 공중 간의 관계로 프레임을 옮긴 PR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맥락을 확장하여 공중과의 관계를 생태와의 관계로까지 넓히려고 한다. 즉, 공중 관계(Public Relations)인 PR을 생태 관계(Eco Relations)로까지 넓히려는 것이다. PR이 인간 사회 안에서의 공중 관계라면 그 관계를 인간 사회에 한정된 공중 관계에서 인간 사회를 포괄하는 생태 관계로까지 넓히는 것이 PR생태학이다. PR생태학은 PR 외연의 확대에 따른 가장 멀고 넓은 궁극적 도착지로 갈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PR에서 부분적으로 생태학적 관점의 도입 필요성 수준을 넘어 PR의 궁극적 도착지가 PR생태학이라는 말이 공허한 주장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PR생태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심스럽고 자세하게 생각들을 짚어 가며 밝히고자 한다.

19세기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PR이라는 용어는 20세기 초 일본으로부터 홍보라는 용어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공중과 호의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는 일인 PR(Public Relations)이 널리[弘] 알리느[報] 홍보로 변질·왜곡·와전되어 들어왔던 것이다.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홍보도 있을 수 있지만 홍보의 가장 주된 목적은 조직의 경제적, 상업적, 영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직접적이며 노골적으로 하려는 일이 해리스(Harris, 1991)가 제안했던 마케팅 PR이다. 그냥 두루뭉술할 수 있는 기업 피알인 CPR(Corporate PR)이 아니라 실리적 마케팅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MPR(Marketing PR)이다.

하지만 PR은 널리 알리는 홍보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광범위한 활동이다. 이러한 PR에 관한 네 가지 모형(Grunig & Hunt, 1984)은 현대 PR의 전이론(ground theory)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 이론(Grunig, Dozier, Ehling, Grunig, Repper, & White, 1992), 상황 이론, 수용 이론 등 다양한 현대 PR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루닉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일관된 맥락으로 그루닉 학파를 이루는 이들의 이론들에서 가장 이상적 PR은 조직과 공중 간 쌍방향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그림 1. 사고 제안을 위한 네 가지 생각할 문제



이러한 관점에서 위기관리, 쟁점 관리, 평판 관리, 신뢰 관리, 헬스 커뮤니케이션 등 PR의 다양한 역할이 나왔다. 박종민(2004)은 PR의 다각적인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 글은 여기에 머무르기보다 넘어서서 전환적 생각을 하려는 것이다.

필자가 먼저 제안하려는 PR생태학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전체적 PR 관련 업계를 뜻하는 PR생태계가 아니다. PR이 추구하는 관계 철학을 생태계로 넓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PR생태학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하여 네 가지 생각할 문제를 꺼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PR생태학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된 현대사회의 병폐 인식, PR생태학의 사상적 기반 마련, PR생태학의 의미 제안, 그리고 PR생태학의 실천 가능성 모색을 위해서다. 그러므로 생각할 문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사고(thought)의 제안(suggestion)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엄격한 연구 방법을 동원한 논문(ethics)이라기보다 저자 개인의 머릿속 자유로운 생각을 따라[隨] 쓰닌[筆] 시론 성격의 수필 논문(essay)이다. 객관성과 일반성이 모자라며 주관성과 자의성이 넘치지만 수치를 동원한 통계 방법으로는 도저히 서술될 수 없는 개인적 주관적 생각을 표현하고 설명하려는 에세이다. 현재 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통계적·양적 논문과는 큰 거리가 있으며 주관적 탐색적 질적 논문과도 다르다. PR생태학이라는 개념을 나름 제안하기 위하여 사(思)적 에세이를 쓰게 되었다. 다만 감상적 느낌이 담긴 에세이가 아니라 공감적 의미가 실린 개념을 제안하고자 학술적 에세이를 쓰려고 한다.

## 2. 현대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정보사회 이후 이제 스마트화된 지능사회가 오고 있지만 세상이 어지러워서인지, 무슨 무슨 사회라는 말이 유행이다. ○○사회라는 말을 넣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책만도 30권이 넘는다(장동석, 2014). 냉소사회(김민하, 2016)와 같은 책 제목에서처럼 주로 현대사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책들이다. 현대 사회의 병폐들을 낱날이 드러내는 책이다. 그중에서 10개만 간추려서 짧게 요약한다.

### 1) 단속사회

단속사회(엄기호, 2014)란 쉴 새 없이 차단(斷)하고 끊임없이 접속(續)하는 이 시대 우리 연결 사회 속의 단속(斷續)하는 모습이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 이후 인터넷, 온라인, 사이버 시대가 왔고 스마트폰 이후로 모바일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까지 되는 유비쿼터스 초연결 사회가 되며 단속사회는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도시 공동체와 지역 커뮤니티, 회사, 또래 집단 등이 붕괴하며 고통의 사회성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는 구경꾼이 되기 쉽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회는 혼자 살다 죽는 무연 사회(NHK無緣社會プロジェクト取材班, 2012)가 되어 가고 있다.

### 2) 피로사회

피로사회(Han, 2010)는 현대사회의 성과주의가 낳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성과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성과의 주체이지만 성과에 치이면서 살게 된다. 성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오로지 성과를 위해 매달려 가는 무미건조한 인간상을 자초할 수 있다. 인간은 성과주의 사회에서도 사색적 삶, 심심함과 느낌, 휴식의 가치가 필요하지만 말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 중국인들도 여유 있게 천천히 사는 만만디(漫漫的) 문화를 가졌었지만 급속한 경제 발전 이후 우리처럼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만 하는 문화로 바뀌고 말았다. 바쁨의 유익이 느낌의 미학을 압도하며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 3) 조작사회

조작사회의 모습은 헉슬리(Huxley, 1932)가 상상한 ‘멋진 신세계’와 비슷하다. 태어나는 인간마저 조작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두지 않고 끊임없이 이미지를 조작하고 허상을 만들며 진홍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지배적 풍속이다. 조작하는 이유는 경제화, 자본화, 영리화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돈과 이익을 얻기 위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체와 다른 허상적 이미지도 만들며 인위적으로 시물라시옹된 조작물인 시물라르크(Baudrillard, 1981)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조작된 허상이 실제의 실체보다 더 실제적이 되는 비정상의 전위적 현실에 살고 있다. 조작된 이미지는 스타처럼 부각되기도 하면서 대중을 현혹한다.

### 4) 풍요사회

풍요사회(Galbraith, 1958)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주류 경제학에서 한 걸음 비껴서서 그동안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구해 왔던 현대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준다. 아울러 이 시대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해 준다. 풍요사회는 좋은 사회처럼 보이지만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사회이면서 내면 정신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는 허기를 느끼는 허기사회(주창윤, 2014)다. 자연이 이룬 풍족함보다 인간이 만든 풍부함이 더 달게 여겨지면서 풍요로운 사회는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면서 풍요 속의 빈곤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빈곤한 풍요다.

### 5) 위험사회

위험사회는 성찰과 반성 없이 산업화 근대화를 이룬 현대사회의 모습이다. 벡(Beck, 1986)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인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몰고 왔다고 했다.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 요인도 증가하는 풍요로운 위험사회다. 위험 요인은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존재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꿈의 단열 건축 소재라고 여겨졌던 석면이 이제 치명적 쓰레기가

되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10억분의 1m인 나노(nano) 과학으로 발전한 소재공학, 세포학 유전자까지 조작할 수 있는 생명공학 덕에 잘살게 되어도 그 탓에 어떤 위험이 도사릴지 제대로 잘 모른다.

## 6) 전투사회

전투사회는 전투적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는 한국인의 모습이다. 관계를 맺는 PR에 PR 전략을 세우기도 하며 전략적 글쓰기, 전략적 대화라는 책이 있을 정도다. 전략, 공략을 접미어처럼 쓰며, 격려를 하는데 Fighting(싸움)을 외치며, 늘 승리의 V(victory)를 손으로 만들며, 서로 살자는 상생(相生)을 서로 이기는 윈윈(win-win)이라 하며, 『손자병법』 원문에 없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까지 만들었다. 시도(試圖)라기보다 도전(挑戰)이라 한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나올 정도다. 이기기만 하면 될까? 세상은 온통 싸움의 상황이다. 모든 일을 싸우듯이 한다. 결국 세상은 거친(tough) 사회가 되어 간다.

## 7) 해체사회

해체사회는 기존의 가치관들이 전복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도기 모습이다. 해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해체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런데 그 해체가 너무도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한 가지 기준이란 ‘쓸모 있음’이다. 예를 들어 지금 대학은 해체되고 있다. 실리, 실용, 실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학과나 학문은 해체되고 있다. 문학·역사학·철학 등의 인문학과 물리학·화학·생물학 등의 기초과학, 그리고 음악·미술·무용 등 예술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대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많은 부문들이 실리나 실용, 실무에만 치중하며 더욱 육성하며 장려해야 할 것들마저 해체되고 있다.

## 8) 낭비사회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늘릴 수 있지만 상품의 수요를 증대할 목적으로 일

부러 제품의 수명을 줄여서 출시한다. 이른바 계획적 진부화다. 또, 광고를 통해 기존의 제품을 헛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른바 심리적 진부화다. 결국 수명 주기와 유행 주기를 짧게 하여 망가진 제품이 되고 고물처럼 보이는 제품은 쓰레기가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계속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생태계 전체로 보면 엄청난 낭비가 기업의 과잉 성장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풍요로운 사회는 낭비사회로 귀결된다. 이러한 낭비사회(Latouche, 2012)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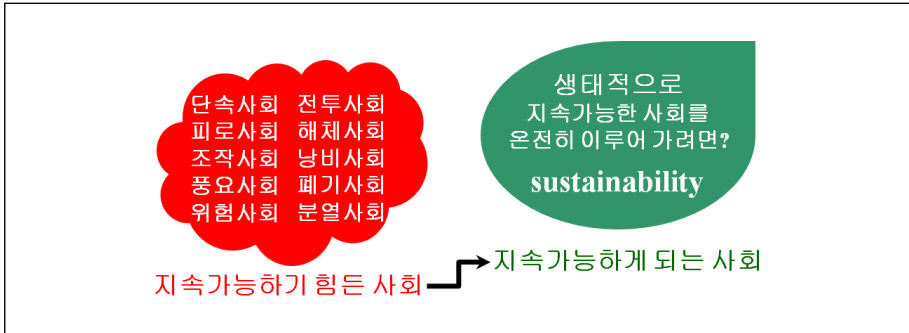
## 9) 폐기사회

폐기사회는 대량 생산된 제품들이 쓰레기로 대량 폐기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이다.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 오직 인간(Homo rubbish)만이 쓰레기를 남기며 산다. 호모 사피엔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다. 석유화학 합성물로 이루어진 제품을 쓰다 버린 폐기물이기에 인간이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버린 쓰레기는 소멸되지도 않는다. 황천도 못 가고 구천을 맴도는 쓰레기가 된다. 이제 쓰레기 문제는 단지 쓰레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우리 생활양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쓰레기 문제는 풀기 힘들다.

## 10) 분열사회

분열사회는 서로 다른 역사관과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대립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그 대립은 주로 경제주의가 좌와 우로 나뉜 것이다. 좌우로 단순하게 분열된 사회는 가장 격렬한 혼란을 야기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자 독선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분열사회는 독선사회(강준만, 2015)와 한통속이다. 두 독선적 양쪽 진영은 서로 분노하며 증오한다. 정치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더욱 부추기기도 한다. 그 지리한 싸움은 언제 끝날까? 경제주의 패러다임에 고착되어 있는 한 풀리지 않는다. 전혀 새로운 더욱 넓은 패러다임으로 세상 문제를 듣고 읽고 보아야 풀린다.

그림 2. 현대사회의 열 가지 병폐와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병폐를 열 가지로 기술한 목적은 단지 현대사회의 트렌드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PR생태학의 의미를 제안하며 그 당위성을 끌어내기 위함이다. 우리 현대인이 지금의 병폐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며 상품이 풍부하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인류의 앞날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경제의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생태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결국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병폐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지 질문하며 생각하기 위하여 현대사회의 병폐들을 열 가지로 기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현대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할 문제 1>에 관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열 가지 사회를 하나로 종합하자면 바로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사회(Roberts, 2015)다. 눈앞의 것만 보니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불안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넘어서려는 생각이 PR생태학이다. PR생태학을 제안하려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병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병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때 생태학적 접근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PR생태학의 의미를 밝히기에 앞서 그 사상적 기원(起源)과 기반(基盤)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 3. PR생태학의 사상적 기반은 누구일까?

지금 현대인과 같은 신인류는 언제 탄생했을까? 하라리(Harari, 2015)는 인류 역사를 결정한 것이 7만여 년 전 인지혁명, 1만여 년 전 농업혁명, 5백 년 전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과학혁명 이후로 산업혁명이 있었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 결국 현대인의 직접적 기원은 500여 년 전부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의 과학혁명에 이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생태에 관해 자각하기 시작한 1800년대, 그리고 산업 사회의 정점에 올랐던 1900년대, 그리고 지금 2000년대 각각 3인을 선정하여 모두 9인의 생각을 간추리고자 한다.

#### 1) 1800년대 선각자 3인의 생각

유럽의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활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장인에 의존하던 가내 수공업이 자본가와 노동자에 의한 공장 대공업으로 전환되며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부르주와 혁명으로 유산 계급(Bourgeois)이 대두했으며 이에 반대되는 무산 계급(Proletariat)이 생겼다. 이러한 양대 혁명이 있고부터 100여 년이 지난 1800년대에 급기야 문제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생태라는 개념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음 3인은 그 대표적 선각자들이다.

##### (1) 조지 마시의 선각

산업혁명의 과실을 흠뻑 빨아들인 1800년대 서구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자랑스럽게 펼쳐지던 때였다. 이 당시 조지 마시(George Marsh, 1801~1882)의 사상은 한 지식인의 한가한 제안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의 생각은 생태주의의 시발(始發), 기원, 원전으로 평가된다.

마시는 환갑 때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이탈리아 공사로 임명받은 후 생을 마칠 때까지 이 일을 했다. 외교관으로 그는 여러 국가들을 여행하며 체험한 실상을 책으로 썼다. 『인간과 자연』(Marsh, 1864)이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시는 인간만이 자연의 모든 질서와 유기적 균형 상태를 파괴하는 유일한 생명체라고 했다. 특히 인간의 행위가 지질학적인 힘을

가지며 자연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중에 『인간과 자연』의 개정판 형식으로 출판된 『인간의 행동이 변형시킨 지구(The earth as modified by human action)』라는 제목은 마시의 논점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시는 인간이 이런 상태를 계속한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어 인류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일삼는 1900년대가 오기도 훨씬 전에 인간이 자연에 끼치는 폭력적 행위에 주목하여 선각(先覺)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놀랍다. 그때보다 그 폭력성이 훨씬 강력해진 인간이 되어 더 강도 높고 범위 넓게 자연을 파괴하며 엄청난 쓰레기를 양산하는 이 시대 실상에 대해 마시의 생각은 자연에 미치는 인간의 잘못된 위력을 반성하게 한다.

## (2) 헨리 소로우의 자각

헨리 소로우(Henry David Thoreau, 1817~1862)는 미국 하버드대학을 졸업했으나 머리 쓰는 일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1845년 월든(Walden) 숲속 호숫가에 들어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며 살며, 자발적 가난(강제윤, 2010)을 실천하였다.

그리고 그 생활의 기록을 미감 넘치는 생생한 책으로 남겼다. 1854에 출판된 『월든』이다. 단순하며 자족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실험적 생활 체험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자주적 인간의 자유 독립 선언문이다. 우리는 『월든』을 읽으며 문명 세상에 관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다. 지금은 소로우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자연 세계와 절단된 화려한 문명 세계다. 도시를 벗어나 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다루는 ‘자연인’ 등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 제작되며 방영되는 이유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연인들은 세상을 등진 패배자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현대판 ‘소로우’라고도 할 수 있다. 소로우는 자연인의 표상(role model)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자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멕시코 전쟁 및 노예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숲으로 들어갔다. 말도 안 되는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며 투옥되기도 한 그였다. 그는 『시민불복종』(1849)이란 저작을 남겼다. 소로우는 전원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책을 쓴 나약한 감상주의자가 아니라 몸으로 적극 실천하며 불합리와 억압에 용감하게 저항하던 행동주의자였다. 그가 생태주의 선각자

의 반열에 오를 자격이 있는 이유다. 그러면서 현대인에게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전환적 대안을 보여 주고 있다.

### (3) 칼 마르크스의 생각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상가는 별로 없다. 그의 저작 『자본론』(Marx, 1867a)은 1917년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이후 세상의 절반을 붉게 물들였다. 그러면서 그의 사상은 변질되어 갔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가로만 알려졌다. 물론 그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하라며 1848년에 『공산당 선언』(Marx & Engels, 1848)을 출간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비판주의자였다. 비판의 천재로, 자본주의 세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생태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마르크스가 생태주의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사실에 가려져 있다.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는 생태주의자로서의 마르크스를 드러내고 있다. 그가 쓴 『마르크스의 생태학』(Foster, 2000)은 마르크스가 생태 문제를 어떻게 탐구했는가를 추적한다. 마르크스의 사상이 본질적으로 생태주의임을 밝힌다. 마르크스의 생태학적 통찰은 유물론에 기초한다. 하지만 그의 유물론은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속한 것이다. 이른바 물질대사라는 개념이다. 그는 자본적 생산양식에 의한 농업은 토지와 인간 사이의 물질대사를 항구적으로 교란시킨다고 했다. 이렇듯 마르크스(Marx, 1867b)는 자본주의가 초래할 농업 위기를 포착해서 대규모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과 토양 사이의 물질대사에 어떻게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는지를 통찰했다. 지속가능성의 핵심을 19세기 중반에 꿰뚫어 본 것이다. 물질대사를 교란하는 자본적 생산양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틀을 마련했던 것이다.

## 2) 1900년대 이론가 3인의 생각

1900년대 백년의 역사(歷史)는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역사(役事)했던 시대였다. 석유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더니 후반에는 정보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자본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다. 하지만

인조 합성물질인 플라스틱 제품 및 화학물질들이 사용 후 폐기되면서 점점 더 많이 쓰레기로 버려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때에 다음 3인의 생각은 우리의 문화, 즉 사는 방식에 관해 되돌아보게 한다.

### (1) 알도 레오폴드의 생각

알도 레오폴드(Aldo Leopold, 1887~1948)의 생각은 강력해진 인간에게 경종을 울렸다. 『샌드 카운티에서의 일년』(Leopold, 1949)은 20세기 생태주의의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그는 20세기 현대 환경 윤리의 아버지, 또는 환경 운동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 책에서 레오폴드는 대지의 윤리(Land Ethic)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대지 윤리는 탈인간중심적이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인간도 생명 공동체 속에서 특권적 존재는 아니다. 그러므로 월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인간 또한 대지로 이루어진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구에 사는 다른 동식물을 정복하거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세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인간도 인드라마망(因陀羅網)인 생태 그물망에 걸쳐 있을 뿐이다.

레오폴드가 말한 ‘산처럼 생각하기’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생태 전반주의 사유다. 이 말에는 우리 인간이 생태계의 일부일 따름이고, 다른 모든 생물체에 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땅인 대지와와의 관계를 다루는 고려가 없었지만, 레오폴드는 땅까지도 윤리적 고려대상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땅에 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땅을 단순히 인간의 소유 재산으로 간주하는 기존 관점을 넘어선 것이다. 대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생태학적인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생명체로서의 지구(Gaia)는 더 이상 우리가 멋대로 정복하며 이용해야 할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직결된 윤리적·도덕적 여건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두고 레오폴드는 깊은 각성을 주고 있다.

### (2) 레이첼 카슨의 생각

제2차 세계대전 후 생태주의 사유가 퍼지며 인간우선주의, 남성위주주의, 이성중심주의가 비판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카슨(Rachel Carson)

이 쓴 『침묵의 봄』(Carson, 1962)은 생태학 및 생태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환경정책법 제정과 환경보호국이 신설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카슨은 두 가지를 경고했다. 첫째, 살충제인 디디티(DDT)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이 사용된 후 분해되지 않은 채 생명체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다. 둘째, 독성 화학물질은 지금의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며 인류에게도 안전지대란 없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살충제 제조 생산 기업들은 카슨이 너무 과장한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많은 미국 국민들은 카슨의 생각에 공감했다. 결국 그녀는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 중 한 명으로 『타임』지에 의해 선정되었다.

그녀는 이상적 생태주의라기보다 지극한 현실주의자였다. 살충제 등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보존을 고려해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구 생명체를 존중하는 길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기(2016)는 카슨이 네스(Arne Naess)의 심층생태학, 북친(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학, 고르(Andre Gorz)의 정치생태학 등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이렇듯 그녀의 사상은 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생태적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 (3) 배리 카머너의 생각

배리 카머너(Barry Commoner)는 『원은 닫혀야 한다』(Commoner, 1971)에서 생태권은 순환하는 원인데 인간이 순환 고리를 파괴하면서 생태 위기가 오게 되었다고 직시한다. 생태권을 파괴한 우리가 앞으로 다시금 그 생명의 순환 고리인 원을 온전히 닫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더불어 지속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생태계(ecosystem)보다 더 광범위한 생태권(ecosphere)이라는 낱말을 쓴다.

카머너가 생태권의 네 법칙을 제시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제1법칙). 모든 것은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다(제2법칙). 자연에 맡겨 두는 것이 가장 낫다(제3법칙). 세상에 공짜 따위는 없다(제4법칙). 지구라는 원은 닫혀 있기에 모든 것은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으니 쓰레기를 어딘가에 버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인은 눈앞의 것만 중요시하며 이러한 당연한 사실

을 편하게 외면한다..

카머너는 생태주의 운동을 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그가 1980년에 군소 정당인 시민당 후보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전력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가 책만 쓰면서 환경 운동만을 하지 않고 정치에 뜻을 두며 뛰어든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물론 이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그가 생태주의 선각자의 반열에 오를 자격이 있는 이유다. 그가 제안한 닫힌 원 안에서의 지속 가능한 순환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우리에게 심각하게 던져 주었다.

### 3) 2000년대 실천가 3인의 생각

생태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극적 인물은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창립자 아들인 존 로빈스(John Robbins, 1947~)이다. 그가 쓴 『육식의 불편한 진실』(1998), 『음식혁명』(2010) 등의 책에는 생태주의를 실천하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장일순(張壹淳, 1928~1994)도 돌봄, 나눔, 베품에 따른 생명운동을 실천하였으며 그의 생명 사상은 무위당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이어 다음 3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적 사고를 말이나 이론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사는 인물들이다.

#### (1) 윤호섭의 생각과 실천

윤호섭(1943~)은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광고 회사 오리콤의 전신인 합동통신 광고기획실에서 코카콜라, 코닥필름, 맥스웰커피 등 외국 상품을 광고하던 광고인이었다. 대우기획 조정실에서 광고와 관련된 제작 일을 하기도 했다. 1982년부터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가 되었다.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잡보리대회에 참가하다가 어느 학생으로부터 환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김병희, 2011). 이후 그는 천직으로 여겼던 광고와 거리를 두며 생태주의자로 거듭 태어났다.

윤호섭은 교육자로서 ‘Green Design’이라는 생태 디자인 관련 과목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스로 생태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 집에서 냉장

고부터 치워 버렸다. 자가용 승용차도 없었다. 1년 365일 모두 지구의 날(Everyday Earthday)이라 여기며 지구 전체를 우리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할 화폭(green canvas)이라 여기며 살게 되었다. 그는 지금도 늘 녹색 모자를 쓰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생태주의 그림을 그려 준다. 말과 글로만 그럴듯한 생태주의자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바뀐 생태주의 실천가가 된 것이다.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그는 강연, 전시, 동네 아이들 교육 등 보람된 활동을 펼치며 노년의 인생을 충분히 즐겁고 뜻깊게 살고 있다. 인터넷(www.greencanvas.com)과 페이스북에서 그의 생태주의 실천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열정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면서 생태적 삶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시대 인물의 본이 되고 있다.

## (2) 윤구병의 생각과 생각

정현상(2007)에 의하면 윤구병(1943~)은 전라남도 함평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월간지 『뿌리깊은 나무』의 초대 편집장을 지냈다. 1981년부터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6년 정년이 보장된 교수직을 그만두고 농사꾼이 되고 싶어 전북 부안으로 낙향했다. 농사를 지으며 대안교육을 하는 교육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인 ‘변산공동체’를 설립했다. 자급자족하면서 생태적 공동체 삶을 함께 사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 인간을 먹여 살리는 먹이 사슬로 보지만 윤구병은 달리 생각했다. 자연은 모든 유기물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통째로 내주는 생체공양을 통해 상부상조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이 공간 속에서 인간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모두가 살아가는 기르는 문화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며 실천했다.

윤구병이 기획하여 문을 열었던 ‘문턱 없는 밥집’은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별난 식당이다. 그의 정체성은 공동체를 꾸려 가는 행복한 농부 철학자다. 생태적 삶의 터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며 산다. 그는 자유로운 잡놈이기를 자부하며 호모 비아토르(Homo Viator), 즉 떠도는 인간의 삶을 산다고 했다. 2015년 간암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변산으로 내려갔다. 지금 죽어도 자연사라며

환하게 웃는 그는 동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생태 공동체의 힘찬 섬김이로 생태주의자의 기운을 전하고 있다.

### (3) 박기평의 생각과 생각

박기평은(1957~)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좌파 민주투사였다.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태어나 16세에 상경하여 선린상업고등학교 야간부를 졸업한 후 노동자로 일했다. 1984년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내 얼굴 없는 시인으로 알려졌다.

박기평은 박노해로 불렸다.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란 뜻이다. 그의 시는 당시 군사 정권이 보기에 불순 불온했다. 1991년부터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소련의 붕괴를 보면서 그는 정신적 사회주의는 지켜 가야 하지만 현실적 사회주의는 잘못됐다고 고백하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감옥에서 나올 때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역대의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 참 대단한 일이었다. 이후 좌파 투사의 길을 거부하며 생태주의자로 거듭났다.

그가 2014년 열었던 사진전 타이틀 ‘다른 길’대로 그는 왼쪽 길도 오른쪽 길도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갔다. 좌파에 같이 몸담았던 그의 과거 동지들은 그가 배신·변절했다고 비난했다. 혹자는 그를 길과 속이 다른 비열한 위선자라고 욕했다. 하지만 그가 가려는 다른 길은 기성 좌파보다 더욱 진보(進歩)적이며 광폭(廣幅)적인 생태주의의 길이라 믿고 싶다. 그가 민생을 말한다면 정치적 수사인 민생이 아니라 생태주의 차원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온전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라 믿고 싶다. 정치적·사회적 발언을 금한 채, 조용히 세계의 빈곤 지역과 분쟁 현장을 돌며 생생한 여행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그의 행보가 때론 도취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라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

지금까지 9인의 사상적 기반을 설명하는 것은 9인의 사상적 기반을 종합하여 PR 생태학을 개념화하는 데 중요한 기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들 9인의 사상에 관해 각각 20자 이내로 요약하여 PR생태학과 연관을 짓자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PR생태학의 사상적 기반은 누구일까?’라는 <생각할 문제 2>에 관해서는 1800년대, 190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각각 3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생태적 사고와 행동은 PR생태학 개념화의 기반을 이룬다. 이들 9인의 사



그림 3. 9인의 사상과 실천이 PR생태학의 개념화에 주는 흐름



상적 기반을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이들의 사상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오로지 인간 중심의 인간주의 및 좌우로 갈린 경제주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큰 길을 찾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 4. PR생태학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태를 어느 한 분야와 연결시키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만도 이미 많은 사례가 있다. 임석재(2011)에 의하면 생태 건축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생태 위기를 해결할 해법이다. 윤상욱(2010)은 생태계 유지와 인간성 회복을 지향하는 도시를 추구하며 도시와 생태라는 아젠다를 제시했다. 교육계에서도 최서윤(2015)은 학교 폭력을 생태학적 인간 존

재론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미술 교육에서도 양은희(2013)는 자연과 친구가 되는 생태 미술 놀이를 제안했다. 가정 분야에서도 김미수(2017)은 생태 부엌이라는 개념으로 냉장고와 헤어진 자급자족 라이프를 실현하였다. 우효섭 등(2017)에 의하면 생태 공학은 인간 탓에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거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설계 기술이다. 김용민(2003)은 죽임의 문화가 창궐하고 생태계의 파괴로 인간의 삶도 훼손되는 시대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생태 문학을 이야기했다. 이준모(2012)는 생태 철학을 통해 오늘날 전 지구적 생태 재앙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장도곤(2002)은 자연 정복이나 자연 숭배를 넘어 자연 친화의 관점에서 생태 신학을 이야기했다. 유기쁨(2013)은 생태 위기 속에서 성장 중심의 기계적 세계관을 벗어나 생태학적 시선의 종교를 제안했다. 김용환(2009)은 생태 윤리의 차원에서 탈현대사회의 가치 교육, 생태 공경의 가치, 생태 정의의 실현 등 다양한 관점들을 고찰했다. 조형숙 등(2009)은 생태 사진을 통해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가치를 사진으로 보여 주었다. 이유진(2012)은 생태 무용(Ecodance)에 관한 논문을 썼다. 최태광(2001)은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에 관한 책을 썼다. 이처럼 생태라는 개념은 21세기인 2000년 이후로 이미 건축, 도시, 미술, 가정, 공학, 철학, 문학, 신학, 종교, 윤리, 사진, 무용, 관광 등 전방위의 분야에 접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PR에서 생태라는 개념은 전혀 낯설다. 생태 PR이라는 말도 없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PR생태학은 필자가 처음 쓰는 용어다. 그래서 PR이라는 학문과 생태학이라는 학문의 접목이 어색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질적일 듯한 이러한 만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PR이라는 용어가 가진 ‘관계(relations)’라는 개념을 공중 관계에서 생태 관계로 넓히면 그 접목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PR과 다른 전환적 PR의 토대 개념들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PR생태학의 의미를 제안하며 그 실천 가능성을 모색코자 한다. 이를 위해 PR생태학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했다.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대강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따라 PR생태학이란 무엇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히 짧게 종이에 적도록 했다. 우선 PR생태학이라는 개념에 대해 전혀 접하지 못한 20명에게 물어 PR생태학이 무엇인지 원래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쓰게 했다. 그리고 PR생태학의 의미를 조금 접하게 한 후 PR생태학이 무엇인지 생각을 다시 쓰게 했다. 이렇게 전과 후의 대답에 쓰

인 생각의 비교를 통해 PR생태학의 개념을 정립하며 PR생태학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 1) PR생태학에 대한 원래의 생각(naive thoughts)

“PR생태학이란 무엇일까요?”라는 뜬금없는 생똥맞은 질문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다. 이 대답들을 세 가지 분류로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 분류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는 PR생태학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기준으로 했다.

### (1) PR생태학과 거리가 떨어진 대답들 (11개)

“생태학을 공중에게 PR하는 것 같다. /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 정말 모르겠다. / 어려운 개념이라 뭐라 말할지 잘 모르겠다. / 왜 PR이랑 생태학이랑 같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 / 뭔가 감이 안 잡힌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 재밌을 것 같긴 하지만 알고 싶진 않다. / PR과 생태학은 전혀 다른 분야로 생각되는데 둘의 결합은 생소하다. / PR생태학이라고 하니깐 약간 적자생존 같은 것도 생각나고 서로 먹고 먹히는 PR 관계 같은 느낌도 든다. / PR이 물, 공기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뜻인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 PR과 생태학은 전혀 다른 것인데 PR생태학이 무엇 이냐고 하니깐 혼란스럽다.”

### (2) PR생태학과 거리가 중간인 대답들 (5개)

“PR생태학이란 생태학을 PR에 접목시켜 사람과 자연의 학문을 다룬 생태학을 PR 속에 녹여 조금 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PR을 이용해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생태계를 알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PR생태학이라고 생각한다. / 생태학을 적용시킨 PR 같은데 잘 모르겠다. 생태에 관련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좋은 인식을 심어 주는 PR 활동인 것 같다. / 조직체를 사회라는 환경에 서식하는 하나의 생물체로 보고 PR을 그 생물체가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 내외부를 연결하는 활동일 것

같다. / PR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어서 생태계를 이루는 모습을 PR생태학이라 부르는 것 같다.”

### (3) PR생태학과 거리가 가까운 대답 (4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생각한다. / 생태학은 생물 상호 간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학문이니 PR생태학은 PR과 관련된 상호간의 관계 및 환경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 같다. / 생태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괴되는 생태계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PR 같다. / PR은 공중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 이 둘이 합쳐진 PR생태학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PR생태학이란 말을 처음 들어 보았으니 혼란스럽다는 대답들이 더 많았다. PR생태학이 생소하기에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위 대답들 중에서 본 연구자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PR생태학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대답은 아래와 같은 생각이다.

“PR은 공중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이고 생태학은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 이 둘이 합쳐진 PR생태학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대답은 PR이 홍보일 것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PR관에서 벗어나 PR이 관계를 이루어 가는 활동임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또한 생태학에 관한 이해도 관계라는 용어를 써서 이해한 것이 필자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맞았다.

## 2) PR생태학에 관해 달라진 생각 (mature thoughts)

이제 PR생태학에 관하여 본 연구자가 가진 생각을 짧게 들려주고 PR생태학에 관하여 가지게 된 생각을 적게 하였다. PR생태학에 대해 아무것도 알거나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답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온 생각들이 각각 아래와 같은 대답으로 표출되었다.

### (1) PR생태학에 관한 부정적 대답들 (5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이상적인 것 같다. / 지금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PR생태학을 받아들여서 변화하기란 쉽지 않다. / PR생태학이라는 이름은 만들 수 있겠지 실현되지 못할 것 같다. / 그동안 생각했던 PR과 너무도 다른 PR생태학이라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다. / 경제 개념이 주로 통하는 세상이라 요원한 것 같다.”

### (2) PR생태학에 관한 중간적 대답들 (3개)

“PR생태학은 말뿐인 공동체가 아닌 그물망 사회의 구축과 연관되어 있을 듯싶다.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그물망으로 연결되어진 생태계와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 활동들을 분석하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지만 중요하다. / 경쟁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가 우선이 아닌 공동체 내의 조화로운 관계에 힘쓰며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것이 PR생태학 같다.”

### (3) PR생태학에 관한 긍정적 대답들 (12개)

“PR은 경제 용어라는 생각이 깨졌다. /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다 / 공중과의 관계를 이루는 PR을 생태 관계로까지 넓혀서 생명이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지금 당장 PR생태학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경쟁으로 인해 피폐해지는 인간의 내면과 사라져 가는 자연 환경들로 인해 주목받게 될 것이다. / PR생태학은 생태 속에서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다. / PR철학에서 중요시하는 그물망 관계를 생태란 단어로 표현한 것이 PR생태학이 아닐까?. / PR생태학에 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산다면 뭔가 방향이 잡힐 것이다. / 평소 우리 사회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믿지 않았었는데 PR생태학 개념을 접하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에 관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 PR생태학의 핵심은 모든 것이 인간 위주로 돌아가고 이익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이 사회에서 벗어나 그물망으로 연결된 모든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근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관계 구축일 것이다. / 물질과 이익만을 위한 경쟁과 성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기 위해 PR생태학은 널리 알려져 점차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R생태학은 탈성장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으로 순리적으로 흘러가자는 의미를 내포한 듯하다. / PR이 공중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 공중 역시 건강한 생태 속에서야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PR의 범위를 생태까지 확장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위 20개의 답변 중에서 가장 정답이라기보다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PR생태학의 의미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정의는 아래와 같은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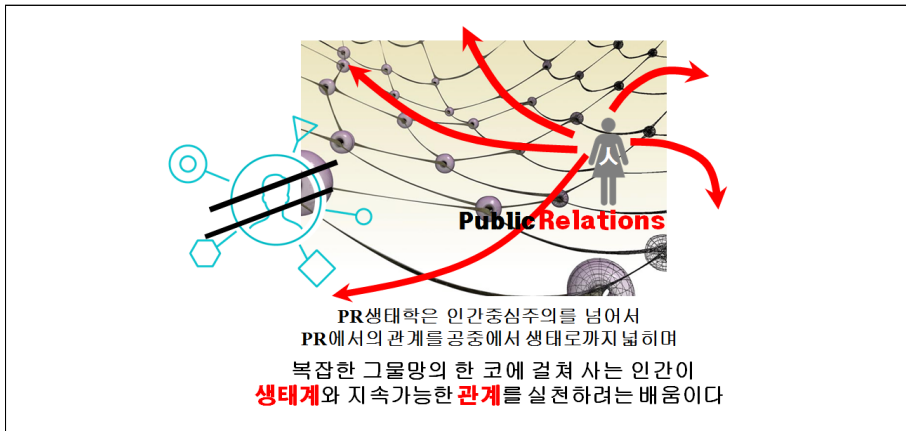
“PR이 공중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만 그 공중 역시 건강한 생태 속에서야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PR의 범위를 생태까지 확장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본 연구자가 PR생태학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서였다. PR이 공중 관계라면 그 공중보다 더 큰 것은 공중이 속한 생태계이고 당연히 생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PR생태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PR학이 공중과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라면, 생태학은 인간이 걸치며 살고 있는 생태와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다. 모두 관계에 관한 학문이므로 PR생태학이라는 학문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PR생태학의 의미와 정의 제안

스미스 부자(Smith and Smith, 2006)에 의하면 생태학은 생물과 그들의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학문이다. PR과 마찬가지로 생태학 역시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태학이 학문이라면 생태주의는 이념이다. 환경 생태주의가 인간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심층 생태주의는 인간과 동식물, 무기물까지 하나의 생태계 자체로 인식하는 것이다(김동명, 2014). 심층 생태주의는 관계성, 복잡성, 순환성이라는 유기론적 특성들을 기반으로 하기에 단순성, 독립성, 폐쇄성과 같은 개체론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삼는 입장과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PR생태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각각의 생각과 함께 본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가진 생각을 하나로 접목하여 PR생태학을 무엇이라

그림 4. 최종 도출된 PR생태학의 의미와 정의



고 정의할 수 있을까? 우선 열 가지로 PR생태학의 의미를 요약한 후 하나로 간단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 ① PR생태학은 인간사회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까지 포괄한다.
- ② PR생태학은 쌍방향 소통보다 그물망적 관계를 중시한다.
- ③ PR생태학은 공중 관계에서 생태 관계로까지 영역을 넓힌다.
- ④ PR생태학은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생태적 손해도 따진다.
- ⑤ PR생태학은 드높은 이상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을 직시한다.
- ⑥ PR생태학은 사상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이끈다.
- ⑦ PR생태학은 좌우로 갈려진 경제주의를 폭넓게 포괄한다.
- ⑧ PR생태학은 정치 세력화를 위한 기반적 이념을 제공한다.
- ⑨ PR생태학은 살아가는 방향을 가리키며 방법을 가르친다.
- ⑩ PR생태학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열 가지 명제들은 연구자가 앞서 언급한 9인의 생각 및 일반인 20명의 생각들을 듣고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명제를 단순화하여 PR생태학을 정의하자면 <그림 4>와 같다.

이제 ‘PR생태학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문제 3〉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PR생태학(PR Ecology)은 공중이 생태와 관계(Public Relations with Eco) 맺는 일에 관한 배움이다. 그물망처럼 이루어진 생태계를 이용하기보다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어 가기 위해 배우는 생각이며 행동이고 실천이다. 이러한 PR생태학은 진보적, 사회적, 인도적 등의 형용사가 붙는 생태주의나 생태철학, 생태학과 같이 인간 중심과 경제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생태주의가 좌우로 갈린 경제주의와 상대되는 이데올로기라면, 생태철학은 복잡한 그물망으로 얽히고설키며 이루어진 생태에 관한 생각의 깨우침이며, 생태학은 생태 현상에 대한 과학이다. 이에 비해 PR생태학은 공중 관계인 PR이라는 낱말에 있는 관계의 폭을 더욱 확장시켜서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이루어 가려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T 생태계, 미디어 생태계, 경제 생태계 등의 용어는 생태계 앞에 있는 IT, PR, 미디어, 경제 등의 한 분야에서의 복잡한 연결망인 생태계를 지칭하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PR 생태계라는 용어도 공중 관계 분야의 복잡한 연결망인 생태계다. 비즈니스 차원에 한정된 분야에서의 좁은 뜻이다. 반면에 PR생태학이란 생태학을 홍보하자는 뜻도 아니며 PR의 관계 개념을 생명이 사는 전반적 생태계, 더 나아가 생태권까지 넓게 확장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PR생태학을 생태주의 PR이라고 달리 부를 수 있지만 PR의 관계 개념을 확장한다는 뜻에서 PR생태학이라고 제안하게 되었다.

## 5. 과연 PR생태학이 실천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10가지 현대사회의 병폐를 살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PR생태학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개념적 기반으로 9인의 사상을 알아보며 PR생태학에 관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으면서 PR생태학의 의미를 제안하였다. 이제 본 논문의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PR생태학이 과연 얼마만한 실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주의 사회에 관해 살핀 후에 기존의 정통 PR이 추구하려는 것과 PR생태학이 추구하려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유한 후에 PR생태학의 실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 1) 견고한 경제주의 세상에서 희미한 생태주의

18세기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는 경이로운 압축 경제 확장 및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환영(2014)과의 인터뷰에서 기소르망(Guy Sorman)은 한국도 경제 성장 시기에 모두가 부의 축적에 몰입하는 가운데 인정사정없는(brutal) 나라가 됐다고 했다. 사회가 분열되었고 사회적 연대가 없어졌다. 푸트넘(Putnam, 2001)이 간파하였듯이 혼자서 볼링 치는 시대가 되며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며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일리치(Illich, 1979)도 근대에 대해 통찰하였듯이 자유시장 경제 사회에서 개인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근대라는 기간은 경제가 발전하면 정치·사회·문화·예술 등 모든 것들도 자연스럽게 발전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져 왔다. 하지만 근대는 모든 것이 이익 추구의 경제로 환원되는 환원근대(김덕영, 2014)였다. 이러한 환원근대를 해결하는 방향 중의 하나가 신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재발명』(Honneth, 2015)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제 과거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조봉권(2016)은 새로운 사회주의가 더 이상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더 이상 프롤레타리아라는 혁명 주체도, 자본주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는 식의 역사적 필연성도 주장하지 않으며, 더 이상 경제적 생산양식이 사회 전체를 결정한다는 경제 결정론을 신봉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선(2016)도 새로운 사회주의는 자유·평등·우애라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유의 확충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역시 인간사회의 경제적 관점에 한정된 사회주의이기 쉽다. 이제 생각의 범위를 경제주의에 함몰된 인간 사회만이 아니라 생태계나 생태권으로 확장해야 할 때가 왔다. 사회적 자유에서 생태적 자유로,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소통에서 인간과 생태계 간의 연대와 소통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주의에 집중하는 인간의 관심과 욕심은 질기고 모질다.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Lummis, 2000)라는 물음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하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대답할 필요가 있다. 김상훈(2014)은 철학자 김영민(2012)의 수필집 『봄날은 간다』를 소개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자본주의 세상의 부조리한 삶에 대해 창의적으로 불화하며 까칠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자본주의를 넘을 수 없다고 했다. 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

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황수연(2014)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조합주의, 전제 정치, 진보주의, 과반수결주의, 환경 보호주의, 사회적 정의, 연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주의들이나 정치경제 체제들을 비교·검토하면서 자본주의 이외의 모든 주의들은 연고주의(緣故主義)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러한 복잡한 논의들은 여러 가지 자본주의와 연고주의의 이분적 구분 속에서 결국 자본주의로 귀결하려는 논리다. 생태주의도 연고주의에 속할까? 하지만 생태주의는 단지 환경보호주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이분적 논의로 설명될 수 없는 더 커다란 전환적 흐름이다. 그 흐름은 자본주의가 속한 경제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물욕 본성을 가지며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경제주의 체제가 너무도 견고하기에 그 전환과 벗어남은 결코 쉽지 않다.

그 전환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다. 임경수(2014)는 승자가 이익과 기회를 독식하는 치열한 경제현장에서 사회적 경제는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악마가 맷돌을 돌리듯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본가가 기업을 돌려서 상품을 만들어 자기만의 이윤을 착취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거대한 전환』(Polanyi, 2001)이란 자유로운 시장 경쟁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이다. 그러면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자는 뜻이다. 실적, 경쟁, 수익 등과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호혜, 연대, 협동 등을 위한 공유 경제 체제가 사회적 경제다. 하지만 이에 관해 양쪽의 생각이 다르다. 한쪽에서는 불온하고 위험한 공산주의적 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통계 실적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고 폄하한다. 양쪽 진영의 말싸움에 답이 없다. 이러한 분열, 대립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분(二分)도 견고한 경제주의에 따른 것으로 여긴다. 좌우로 나뉜 경제주의보다 더 포괄적 이념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생태주의다. 생태주의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생태 전반으로 폭을 넓히면서 사회적 경제까지 포괄하는 생태적 경제에 따른 생태 경제학을 정립할 수 있다.

## 2) PR에서 생태주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방향

이렇듯 경제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태주의나 PR생태학이 존재할 수 있을까? PR

생태학은 녹색 성장을 홍보하는 PR이 아니다. 인간이 생태계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생태주의를 PR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는 PR에서의 관계들(relations) 철학을 공중 관계로부터 생태 관계로까지 넓힌 개념이다. 이러한 PR 생태학이 현실적으로 실현·실천되려면 PR학계에서 다루는 조직·공중 간 쌍방향 균형이나 관계에서처럼 인간 사회에서의 균형이나 관계보다 더 폭넓은 거시적 시각과 광폭적 생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과 생각은 복잡다단한 생태계 그물망의 한 코에 걸쳐 있는 인간이 어찌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다. 그물망에서 인간은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다. 중심에 위치한 인간이 동그란 반지(環)처럼 보이는 장소(境)인 환경을 따지지 않는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환경보호나 자연보호를 떠들며 외치지 않는다. 다만 그물망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마련하여 주는(與) 조건(件)인 여건에 순리적으로 따를 뿐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런 순리적 흐름에 따라가기 어렵다. 실제적으로 경제주의에 따른 생각들과 산물들이 실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좌우로 갈려 서로의 폐단을 축적하여 온 모진 경제주의의 관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오래된 미래』의 저자인 노르베르 호지(Helena Norberg Hodge)는 성장 지상주의에 매몰된 한국 사회에 우려를 표했다(주영재, 2014).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화로 인해 대다수는 더욱 가난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으며, 그런 불안을 생태적 위기라고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직접 제작한 <행복의 경제학>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세계 경제가 엄청난 생태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각각의 지역들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심화와 인간적 규모의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행복 경제학이라고 주장한다. 안희경(2014)이 중국 런민대(人民大) 원테쥘(溫鐵軍)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소개한 삼농(農民-農業-農村)은 인간적 규모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경제에 입각한 좁은 변화만을 논한다. 1980년대부터 ‘제3의 물결’이 유행이더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유행이다.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의 2016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선정된 이후 세상은 이 논의로 온통 떠들썩하다. 리프킨(Rifkin, 2012)이 훨씬 먼저 제안했던 3차 산업혁명은 훨씬 더 진보적 제안이었음에도 4차 산업혁명 여파에 파묻히고 말았다. 산업도 6차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향상되었다. 과연 인류는 5 → 6 → 7 → 8차… 하는 식으로 언제까지나 계속 향상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 뉴노멀(New

Normal)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과연 무엇이 새로운(新) 정상(正常)일까?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가 언제 어디서나(ubiquitous) 작동하는 세상이 ‘뉴노멀’일까? 이는 새로운 지능 시스템에 의한 새로운 경제 체제일 뿐이다. 초지능·초연결로 회자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고착화되기 쉽다. 생태적 부조화도 더욱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인간 사회가 오로지 주로 추구하는 경제주의 사상은 그대로 둔 채 4차적 또는 5차적 시스템만 바꾼다고 뉴노멀이라 할 수 없다. 뉴노멀을 추구하면서 더욱 비정상적인 애브노멀(abnormal)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은 이념이고 사상이며 생각이다. 사실 우리는 경제주의에 입각한 이러한 경제 체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임을 내심 알고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알고도 멈추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제주의 체제가 너무도 견고하며 공고하기 때문이다. 참된 뉴노멀은 생태주의를 이해해야 실천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생태주의가 중요하게 여겨지기에 는 요원해 보이며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러한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이나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등은 PR 업계와 학계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도 주로 경제적 관점을 기본 바탕으로 깔거나 영리적 목적을 숨길 수 있다. 그러면서 CSR과 CSV 간 논쟁이 복잡하다. 과연 새로운 CSV가 기존의 CSR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CSR이 CSV를 전작부터 포괄하고 있던 것인지 양측이 말싸움이 팽팽하다. 이에 관하여 PR생태학 관점에서는 CSR이나 CSV를 넘으려 한다. 생태 관계의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기업의 생태적 책임(CER: Corporate Ecological Responsibility)까지도 생각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공유 경제 창조만이 아니라 공유 생태 유지(SSE: Sustaining Shared Eco)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인류 문명은 생태 문화로 전환할 때다. 여기서 생태 문화란 인간이 생태계와 지속 가능하게 어울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PR생태학의 의미도 정의도 개념도 세울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희미하다. 그러므로 PR생태학은 뜬구름 잡는 개념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곧 경제주의를 압도하며 포괄하는 생태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생태주의 혁명이 오고 있다. 이를 대비하여 PR생태학은 기존의 PR에서처럼 조직과 공중 간 균형이나 관계만을 다루지 않고 큰 기틀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3) PR생태학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실천 가능성

식욕, 성욕, 수면욕, 권력욕, 명예욕, 지배욕 등 인간이 지닌 여러 본성적 욕심들 중에서 인류 문명을 이루어 온 동기는 물욕(物慾)이다. 소유욕에 해당하는 물욕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도 석기 시대에 머물며 살고 있을 것이다. 물욕 덕분에 인간은 세계 각지에서 고대 황금 문명을 이룰 수 있었고 현대 물질문명도 이룰 수 있었다. 그만큼 인간의 물욕은 질기고 모질며 억세다. 그런데 PR생태학이 실천되려면 이 물욕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줄여야 한다. 많이도 아니고 조금 줄이면 된다. 하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인간의 본성들 중 가장 강력한 물욕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PR생태학의 실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생각이 막히기 시작한다. 답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불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딱 맞는 객관적 정답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가능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AD 1년에 세계 인구는 2억5000만 명이었다. 1650년 5억5000만 명, 1750년 7억3000만 명, 1850년 11억7000만 명, 1950년 23억9000만 명었다. 2000년에 62억5000만 명, 2017년 현재 70억 명이다. UN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 10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100년 후 100억 명이 된다는 전망(Dorling, 2013)을 훨씬 앞지르는 전망이다. 기하급수인 인구 증가다. 인구는 등비(等比) 급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등차(等差) 급수에 따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에 치명적 식량난에 봉착하며 빈곤과 죄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맬서스(Malthus, 1798)의 예측은 맞지 않았다. 현명한 인류는 과학기술에 의한 녹색 혁명을 통해 식량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더 첨단 기술적 방법으로 육류도 4D(Dimension) 프린팅 방식으로 공장에서 만들어 생존 필수 자원인 식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류 증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새로운 인구론이 나와야 할 때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인구론의 명제를 제안한다.

“인구는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며 식량도 이에 맞추어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쓰레기도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치명적 오염난에 봉착하며 빈곤과 죄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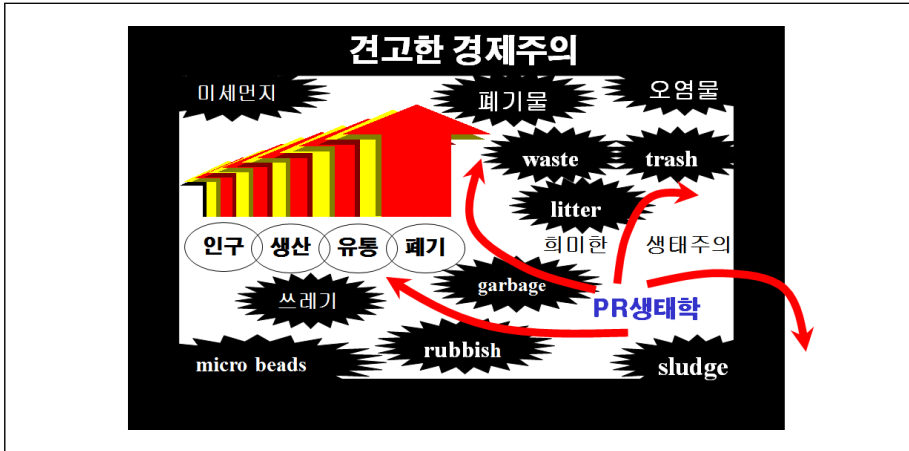
만일 인류가 멸망한다면 부족한 식량이 아니라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일 것이다. <Wall E>라는 영화에서의 예측대로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지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다. 식량이 아니라 쓰레기가 관건이다. 쓰레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순환을 망치며 어지럽히고 있다. 식량 등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품 생산량의 증대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폐기량의 증대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상품을 포장하는 일이 과학적·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경제적·상업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기물 쓰레기는 우리를 점점 옥죄어 오고 있다. 땅에 버리는 쓰레기는 통째로 미세하게 분해되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로 흘러간다.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들(micro beads)이 이미 바닷속 플랑크톤 양에 필적할 만큼 늘어 가고 있다. 육지와 공기에 이어 해양마저 오염되면 인류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치명적 쓰레기 문제 때문에 우리 인류는 물욕을 줄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강렬한 본성인 물욕을 스스로 알아서 줄이기 힘들지만 그렇게 줄이지 않으면 생존 불가능한 상태에 봉착하므로 할 수 없이 물욕을 줄이며, 따라서 쓰레기를 줄이며 살아야 한다. 바로 이때 생태주의나 PR생태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줄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얼마나 좀 더 먼저, 빨리 이르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즉, 할 수 없이 물욕을 줄여야 하는 타이밍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다. 막바지에 가서 맞닥처서 알고 실천하면 돌이키기에 너무 늦기 때문이다. 우리가 먼저 각성하여 지구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찌 해야 할까?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사람이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탈성장사회(Latouche, 2010)로 가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비현실적이라며 무시할 수 없다. 인간 사회에 심각한 경지를 넘어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키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물욕을 줄이며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이제라도 준비해야 마땅하다. 경제주의로 작동하는 권력과 제체에 따르지 않는, 지금 당장 어색하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생태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한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PR의 관계 철학을 생태 관계로까지 넓힌 PR생태학은 우리 시대의 거친 문제들을 풀어줄 수 전환적 테제를 제시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테마는 여기저기 넘치고 있다. 테마 공원, 테마 상품 등……. 그 테마들은 주로 돈벌이용이니 이 시대의 테제는 레닌(Vladimir Ilich Lenin)이 1917년 10월 혁명 때 던졌던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로”처럼 단순하다. “모든 권력은 막강한 돈으로!” 하지만 PR생태학에서는 좌우로 나뉜 경제주

의와 다른 전환적 테제를 선언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온전한 생명으로!”

이런 전환적 테제가 실현되려면 환경보호나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력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 이스턴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Easton, 1979).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인 경제의 정의를 패러디한 듯한 정치의 정의이지만 적절한 정의다. 더 직설적으로 정치를 ‘이상적 생각의 세력적 실행’이라 정의할 수도 있다. 정치화는 곧 세력화다. 결국 생태주의 이념에 따른 정치가 실행되려면 환경보호나 자연보호 운동에 머물러서는 실현되기 힘들며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구조(governance)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생태적 관점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배분토록 실행할 수 있다. 정치가 정책을 수립토록 하며 그 정책에 따라 행정이 움직인다. 생태주의 기반의 PR생태학에 관한 지금까지의 생각들은 혼자 힘으로만 실행될 수 없다. 언젠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 세력을 모아 생태주의 정치를 실행하고자 할 때 위의 생각들이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면 자유 자본주의가 아니라 생태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아직 요원하다고 여겨지지만 아주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실제로 2009년에 창당된 이탈리아의 정당인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의 주요 정치 노선은 경제 성장 후퇴주의와 생태주의다. 물론 이 정당은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정당은 이미 연정을 통해 과거 집권 경험 있고 주지사 배출하는 등 무시 못 할 정당이 된 독일의 녹색당과 함께 현실적 대안 정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존재감 없는 미약한 군소 정당이 아니다. 이태리 국민들 지지율이나 국회의석수도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 정당이다. 2016년 선거에서 경제 성장과 같은 허풍적 공약(空約)이 아니라 로마 시내의 고질적 쓰레기 문제 해결 등 생활형 공약(公約)을 내건 여성 로마 시장 비르지니아 라지(Virginia Raggi)를 당선시켰다. 스페인의 신생 정당인 ‘공유 도시 바르셀로나(BCom)’는 바르셀로나의 여성 시장 아다 콜라우(Ada Colau)를 당선시키며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 산업 촉진 정책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생태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녀들이 지금 얼마나 시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유럽에서 로마와 바르셀로나라는 대도시의 시장이 생태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우리도 이처럼 생태주의를 전면에 내건 정당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는 있겠으나 지지 세력을 5성운동 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지 세력을 얻는 일은

그림 5. PR생태학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정치의 핵심이며 본질이기에 생태주의 기반의 PR정치학에 따라 PR생태학도 현실화되며 실천될 수 있다. 지금까지 PR생태학의 실천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요약하면 <그림 5>와 같다.

‘과연 PR생태학은 실천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할 문제 4>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듯 견고한 경제주의 체제가 인구수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른 식량 등의 물품 생산량과 유통량을 증가하게 되고, 결국 폐기량을 증가하게 되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쓰레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아직 희미한 생태주의 관점에서 PR생태학을 절박하게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중이라면 본 글에서 제안하는 PR생태학은 하나의 사상적 지상(紙上) 기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사상은 혁명의 기반이 된다. 모든 혁명은 결국 종이 위에 쓰인 사상에서 출발한다는 이른바 지상(紙上) 혁명론(revolution on paper), 더 나아가 지상 개혁론이다. 이 부족한 글이 경제주의를 넘는 생태주의 개혁의 지상(紙上) 사상일 수 있다. 그러한 사상적 원료나 재료가 되는 작은 한 점으로 보태지길 바란다. 그것이 언젠가 PR생태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일 것이다. 연구 방법론적으로 많이 부족한 이 글은 PR생태학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는 생각의 장이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사상은 의미 없을 것이다. PR생태학의 실천을 제한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요지이며 또한 존재 의미일 것이다. 이를 실천한다는 일이 크고 멀리 있



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덜 배출하는 생활을 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일부러 실천하면 된다. 주변에 널린 쓰레기 줍기까지 한다면 실천 수준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앞으로 PR생태학이 우리 현실에서 실천된 작은 사례들이 모아진다면 실천 가능성의 확률이 커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제운 (2010). *자발적 가난의 행복*. 서울: 생각을담는집.
- 강준만 (2015). *독선 사회*. 서울: 인물과사상사.
- 김덕영 (2014). *환원근대: 한국 근대화와 근대성의 사회학적 보편사를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길.
- 김동명 (2014). *심층생태주의의 유기론적 사회*. 국학자료원.
- 김미수 (2017). *생태 부역: 냉장고와 헤어진 어느 부부의 자급자족 라이프*. 서울: 콤파.
- 김민하 (2016). *냉소사회: 냉소주의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렸나*. 서울: 현암사.
- 김병희 (2011). 디자인의 생각창고. 한경사.
- 김상훈 (2014, 5, 23). 자본주의 세상의 부조리한 삶, 철학자의 눈 통해 새롭게 자각. *부산일보*.
- 김영민 (2012). *봄날은 간다: 공제의 비망록*. 파주: 글항아리.
- 김용민 (2003). *생태문학*. 파주: 책세상.
- 김용환 (2009). *탈현대사회의 가치와 생태윤리*. 충북대학교출판부.
- 김호기 (2016, 5, 25). 김호기의 세상을 뒤흔든 사상 70년 10번째: 생태 파괴하는 인류, 안전한 미래는 없다. *경향신문*.
- 김환영 (2014, 5, 10). 한국은 인정사정없는 사회다. *중앙일보*.
- 박기철 (2011). *PR, 전략을 넘어 철학으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기철 (2012a). PR정치학 가능성 모색과 제안: 루소, 푸르동, 레논의 사상을 바탕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7호, 99~139.
- 박기철 (2012b). 정치홍보가 아닌 PR정치란 무엇일까?: 의미정립, 관련사상, 역할방향 제안.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호, 121~164.
- 박기철 (2013). PR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역사관점, 정치사상, 구체방법 제안. *광고PR 실학연구*, 6권 1호, 29~60.
- 박기철 (2014). 왜 당위적 원론은 실현될 수 없을까?: 생태주의 기반의 PR정치를 통한 문제 해법 제안. *홍보학연구*, 18권 2호, 5~44.
- 박기철 (2016). *아~ 쓰레기: 쓰레기에 관한 1년 365일 everyday 인문생태학 관점의 보고서*. 부산: 해인출판사.
- 박기철 (2017). PR 토대개념의 전환: PR에서 전략에 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광고PR 실학연구*, 10권 3호, 117~144.
- 박종민 (2014). 순수PR이론들의 전개와 현황; PR학 그 정체성을 돌아보며. *홍보학연구*, 18권 1호,

323~329.

- 엄기호 (2014). *단속사회, 설 새 없이 접속하고 끊임없이 차단한다*. 파주: 창비.
- 안희경 (2014, 6, 10). 농민-농업-농촌, 삼농을 중국 아젠다로 확립. *경향신문*.
- 양은희 (2013). *자연과 친구 되는 생태미술놀이*. 서울: 북센스.
- 우효섭 외 (2017). *생태공학*. 청문각.
- 유기쁨 (2013). *생태학적 시선으로 만나는 종교*. 한신대학교출판부.
- 윤상욱 (2010). *도시와 생태*. 서울: 문음사.
- 이유선 (2016, 10, 3). 듀이의 프래그머티즘 주목, 각자도생에서 사회적 희망으로. *교수신문*.
- 이유진 (2012). 한국무용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본 생태무용(Ecodance)의 발생 배경과 범주. *모드니 예술*, 7권, 113~127.
- 이준모 (2012). *생태철학*. 서울: 문사철.
- 임경수 (2014, 6, 19). 부산은 지금, 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가. *국제신문*.
- 임석재 (2011). *생태건축*. 서울: 인물과사상사.
- 장도곤 (2002). *예수 중심의 생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장동석 (2014, 6, 7). ○○사회, 한국을 말하다. *국제신문*.
- 정현상 (2007, 8, 28). 나는 본디 자유로운 잡놈 돈 없는 세상서 사는 연습. *주간동아* 제600호. 동아일보사.
- 조봉권 (2016, 10, 1).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르네상스를 꿈꾸다. *국제신문*.
- 조형숙·류혜숙·장정애 (2009). *생태사진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자연에서 배우는 삶의 가치*. 서울: 다음세대.
- 주영재 (2014, 5, 30). 세월호는 사람보다 이윤 중시한 한국의 비인간성 드러내. *경향신문*.
- 주창윤 (2014). *허기사회*. 파주: 글항아리.
- 최서운 (2015)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교육철학적 규명: 생태학적 인간존재론을 중심으로*. CH출판.
- 최태광 (2001). *생태관광론*. 서울: 백산출판사.
- 황수연 (2014, 6, 8). 자본주의를 제외한 모든 이념은 '연고주의'다. *데일리안*.
- NHK無縁社會プロジェクト取材班 (2012). *無縁社會 無縁死三万二千人の衝撃*. 김범수 (역) (2014). *무연사회: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용오름.

- Baudrillard, J. (1981).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역) (2012).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홍성태 (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서울: 새물결.
- Carson, R. (1962) *Silent spring*. 김은령 (역) (2011). *침묵의 봄*. 서울: 에코리브르.
- Coche, Y. (2009). *Antimanuel d'Ecologie*. 배영란 (역) (2012). *불온한 생태학*. 파주: 사계절.
- Commoner, B. (1971). *The closing circle: Nature, man and technology*. 고동욱 (역) (2014). *원은 닫혀야 한다*. 서울: 이음.
- Dorling, D. (2013). *Population 10 billion*. 안세민 (역) (2014). *100억 명*. 서울: 알키.
- Easton, D. (1979).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A Phoenix book.
- Foster, J. B. (2000). *Marx's ecology: Materialism and nature*. 김민정 · 황정규 (역) (2016). *마르크스의 생태학: 유물론과 자연*. 서울: 인간사랑.
- Galbraith, J., & Kenneth, J. (1958). *The affluent society*. 노택선 (역) (2006). *풍요한 사회*. 서울: 한경BP.
- Grunig, J., & Hunt, T. (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박기순 · 박정순 · 최윤희 (역) (2004). *현대 PR의 이론과 실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Grunig, J., Dozier, D. M., Ehling, W. P., Grunig, L. A., Repper, F. C., & White, J. (1992). *Excellence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n, B. (2010). *Mudigkeitsgesellschaft*. 김태환 (역) (2012). *피로사회*. 파주: 문화과지성사.
- Harris, T. (1991). *The marketer's guide to public relations*. John Wiley & Sons, Inc.
- Harari, Y. (2015).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조현욱 (역) (2015).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의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파주: 김영사.
- Honneth, A. (2015). *Die idee des sozialismus*. 문성훈 (역) (2016). *사회주의 재발명*. 서울: 사월의 책.
- Illich, I. (1979). *The right to useful unemployment*. 허택 (역) (2014).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 서울: 느린걸음.
- Latouche, S. (2012). *Bon Pour La Casse! Les Déraisons de l'Obsolescence Programmée*. 정기현 (역) (2014). *낭비 사회를 넘어서 계획적 진부화라는 광기에 관한 보고서*. 파주: 민음사.
- Latouche, S. (2010). *Sortir de la societe de consommation: Voix et voies de la décroissance*. 양상모 (역) (2012). *탈성장사회*. 오래된 생각.
- Leopold, A. (1949). *A sand county almanac*. 송명규 (역) (2000). *모래 군(群)의 열두 달*. 서울: 따님.
- Lumms, C. D. (2000). *經濟成長がなければ私たちが豊かになれないのだろうか*. 김종철 · 최성현 (역) (2002). *경제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서울: 녹색평론사.

- Malthus, T. (1798).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이서행 (역) (2016). *인구론*. 서울: 동서문화사.
- Marsh, G. (1864). *Man and nature*. 홍금수 (역) (2008). *인간과 자연*. 파주: 한길사.
- Marx, K., & Engels, F. (1848).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남상일 (역) (1989). *공산당 선언*. 서울: 백산서당.
- Marx, K. (1867a).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김수행 (역) (2015). *자본론*. 서울: 비봉출판사.
- Marx, K. (1867b).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강신준 (역) (2008). *자본론 I -1* (p. 672). 서울: 도서출판 길.
- Polanyi, K. (2001).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홍기빈 (역)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전환*. 서울: 도서출판 길.
- Putnam, Roberts (2001).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정승현 (역) (2016). *나홀로 bowling*. 서울: 페이퍼로드.
- Rifkin, J. (2012).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안진환 (역) (2012). *3차 산업혁명: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파주: 민음사.
- Roberts, P. (2015). *The impulse society: America in the age of instant gratification*. 김선영 (역) (2016). *근시사회: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인류의 미래*. 파주: 민음사.
- Robbins, J. (1998). *Diet for a new America*. 이무열 · 손혜숙 (역) (2014). *육식의 불편한 진실*. 서울: 아릅드리미디어.
- Smith, T., & Smith, R. (2006). *Elements of ecology* (6th). 강혜순 · 오인혜 · 정근 · 이우신 (역). *생태학*. 서울: 라이프사이언스.
- Thoreau, H. D. (1849). *Civil disobedience*. 강태원 (역) (2009). *시민불복종*. 서울: 다락원.
- Thoreau, H. D. (1854). *Walden*. 강승영 (역) (2011). *월든: 대자연의 예찬과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긴 불멸의 고전*. 파주: 은행나무.

논문투고일: 2017년 2월 28일

논문심사일: 2017년 9월 29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18일

## **A b s t r a c t**

# **Inquiry about Meaning Suggestion of PR Ecology and Its Practicality**

**Park, Kichul**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Kyungsoong University

PR are different from publicity. PR are to build relations with publics. Expanding relationship from human society to ecological system is PR ecology. It is the far-wide and ultimate destination of PR proceeding. Nowadays we are in sever-access society, exhaustion society, simulation society, affluence society, danger society, combat society, disband society, dissipation society, discard society, split society. In short myopia society in which we run fast impulsively. We may resolve problems of our societies thoroughly with PR ecology. Nine persons's thoughts and behaviors of past 19th · 20th century and 21th century may be fundamental idea of PR ecology. We are receiving new world in which we will live out of economism that divided into left-right and humanism that is only human-centered. PR ecology may be basic ideology of ecological revolution and may indicate the direction of we-human in ecological world.

**KEY WORDS** PR • Public Relations • Ecology • Relationship